

석유화학제품 상승세 확산될까?

대신증권, 합성수지 1000달러 넘어 호조 ... 중국수요가 문제

대신증권은 7월1일 에틸렌(Ethylene) 등 기초유분 중심의 석유화학제품 상승세가 확산되고 합성수지 평균가격이 톤당 1000달러를 넘어섰다고 보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<비중확대> 의견을 유지했다.

대신증권은 에틸렌 가격이 전주대비 15.8% 상승한 858달러, 합성수지는 1.5% 상승한 1037달러를 기록했고,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.

또 그동안 구매를 미루어오던 타이완 화학기업들이 재고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고, Dow Chemical의 미국 텍사스 소재 에틸렌 60만톤 크래커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분간(3-5주간) 공급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.

아울러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의 주력품목인 PVC(Polyvinyl Chloride) 가격이 톤당 718달러로 4% 상승함에 따라 LG석유화학의 수익성과 깊은 관련을 보이는 에틸렌 제조마진이 33.6% 증가하면서 3/4분기 영업실적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했다.

아울러 호남석유화학의 주력품목인 MEG(Mono-Ethylene Glycol) 역시 중국기업들의 꾸준한 구매수요와 에틸렌 가격 강세에 힘입어 톤당 783달러로 3.3% 상승했다고 강조했다.

그러나 석유화학 전문가들은 중국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급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2004년 및 2005년 초의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7/04>